

전 남

바다한복판 아찔한 승·하선

신안 하태도 선착장 부잔교 접안 외면

여객선사 “시간 더걸린다”... 주민안전 무시

국도의 최서남단인 가거도 인근에 있는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하태도는 주민 100여 명이 사는 오지 낙도로 낚시꾼이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지만 육지 나들이가 쉽지 않다. 마을 선착장에 안전 접안을 위한 부잔교가 설치됐는데도 여객선사가 외면해 아찔한 곡에 승하선이 계속되고 있다. 쾌속선이 하루 한 번씩 다니지만, 타고 내리는 과정에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가 있는 섬 주민들의 경우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여객선을 타고 내려 사고 위험이 크다. 목포에서 흑산도를 거쳐 하태도를 거치는 여객선사가 둔벌이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안군이 위험천만한 바다 한복판 승·하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1억5000만원을 들여 하태도 선착장에 가로 14m·세로 30m의 부잔교와 길이 20m의 다리(도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여객선사는 종전처럼 작은 어선이 여객선 도착시각에 맞춰 바다 한가운데 마중나오는 이른바 ‘종선’을 운영하고 있다. 선착장에서 200여 m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 아찔하기만 하다. 주민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80% 이상이고 장애가 있는 주민도 있어 대부분 파도가 높고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여객선에 오르고 내리는 쉽지 않다. 일부 주민은 거어서 오르고 있을 정도다”면서 “여객선사가 선착장 접안 시 5~7분 정도 더 걸린다고 주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신안군과 목포 항만청에서 부잔교 접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종전처럼 종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필기자 vncho@

‘능주 씻김굿’ 열립니다

민속예술축제사업 현지심사 오늘 화순 한천 모산리 굿당

‘씻김굿’은 죽은 이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 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남도 지방의 굿이다. 경상도 지방의 ‘오구굿’, 경기 지방의 ‘지도귀굿’, 함경도 지방의 ‘망목이굿’ 등과 같은 성격의 굿이다. 남도에서는 진도에서 행해지는 ‘진도 씻김굿’(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내륙지역인 화순 ‘능주 씻김굿’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화순군은 “‘능주 씻김굿’ 공연이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천면 모산리에 있는 굿당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능주 씻김굿’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작품으로 소규모 민속 예술·마을 전승의식 등 현장성 있는 민속예술과 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중 축소와 고 폐지된 민속을 복원하고 재현하기 위해 한국민속예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 현지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며 올 가을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제52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때 시연과 시상을 하게 된다. ‘능주 씻김굿’은 지난해 12월 21



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50호로 지정됐으며 다른 지방의 굿과는 다르다. 광주 7거리, 목포 6거리, 고흥 9거리, 해남 11거리로 대부분 간략한데 비해 ‘능주 씻김굿’은 12거리나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두 군데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안은 작품이기도 해 ‘예향 화순’의 명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나주 ‘전남 종합사격장’ 동계훈련장으로 각광

나주에 있는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전남 종합사격장이 겨울철 사격선수들의 동계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은 지난 1월 초 여수여고 학생 10여 명이 1주일 동안 합숙훈련을 한데 이어 향림중학교, 전남체고 선수들이 훈련을 받았다. 이달 들어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50여명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동계 합숙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환일고생 50명 ▲광주체고 29명 ▲전북체고생 등 5개팀 130명이 사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 전남 종합사격장이 이처럼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은 것은 2015하게 유니버시아드 광주 실사단으로

부터 훌륭한 시설로 격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종목 특성상 일부 종목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동계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람막이를 설치해 원활한 훈련을 돕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흥 ‘전남 목공예센터’ 인기몰이

편백나무 제품 한달새 5천여만원 판매

산림치유와 휴양명소로 알려진 장흥 억불산 우드랜드내에 개관한 ‘전남 목공예센터’가 수도권 소비자들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개관한 목공예센터에서 DIY가구인 침대, 서랍장, 책상, 의자 등 다양한 핸드백과 놀이기구, 목공예 펜 등과 편백 테라피용품이 이르기까지 한 달에 5000여 만원의 제품이 판매됐다. 현대식 한옥건물로 지어진 목공예센터내 전시 판매장인 ‘임의대’에는 생산자연합회와 공예조합 등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제조공방인 ‘억불대’에는 국보공

예, 금품공예, (사)문화예술진흥회 등 6개 업체가 입점 전국 최대 규모의 목공예센터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와 군은 그동안 국내 목공예 대가로 알려진 호심파니처, 이환규 목조각전, 김동인 로프트, 김주호 조각전 등 7회에 걸쳐 명인들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와 같이 목공예센터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데는 의학적적으로 편백나무에서 풍어나는 피톤치드(pytonic) 향이 환경정화(아토피) 치료에 좋다는 분석에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군 모기 유충 구제방역 나서

방역기동반 편성 23~24일

화순군보건소(소장 김연수)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모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기유충 구제방역을 실시한다. 군보건소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및 환경변화로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모기알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인 모기유충 단계에서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방역에 나섰다. 이번 방역활동은 4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동주택, 어린이집 정화조 등 130여 곳을 대상으로 모기유충 서식 밀도 조사를 통해 모기의 발생 근원이 되는 곳을 제거한다. 김연수 군 보건소장은 “모기유충인 장구벌레는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 장소를 찾아 방제한다던 성충 구제 위주의 방역소득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61-379-5334)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농어촌공 전남본부, 청렴문화 정착 결의대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중원)는 지난 16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결의대회와 함께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목포 하당파출소 순찰강화 맞춤형 치안활동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 하당파출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벌여 귀감이 되고 있다. 하당파출소는 주·야간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신하가를 맞아 청소년의 탈선 예방과 성폭력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요인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당파출소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관내 빈집이나 공사 중 단 현장의 현황을 파악, 정밀 방범진단으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 수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딸방이 서민층 가정의 여아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초등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가정 7개소를 선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34개소와 자율방범 대원 등과 연계해 도보 및 112 순찰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관내 독거노인 4명을 수시 방문해 자녀와 친인척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친서민 치안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6116@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애몰지식센터', '금산공인중개사', '금당 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호남랜드공인중개사', and '중앙공인중개사'.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about property location, size, price, and features.